

지혜의 보고 佛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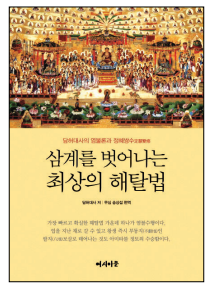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6 ~ 8/12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서방 극락이 그대 집선해상인 열불법문	정원규	민족사
2	수트라 (여시아독)	법일	김영사	7	현판기행	김봉규	담앤북스
3	성철 스님의 화두공부 하는 법	성철	해인사출판부	8	임종,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인광,홍일	운주사
4	나를 찾아가는 명상 여행	정여	맑은소리출판부	9	사랑이 온대(회해와 치유) 그림편지	이영철	해조음
5	뉘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용	용화	10	두 글자로 깨치는 불교	가섭	불광출판사



염불은 정토왕생의 제일 확실한 방편

삼계를 벗어나는 최상의 해탈법
담허대사 지음 | 무심 송상섭 편역 | 여시아문 펴냄



“만약 발심하여 염불하면 일념염불이 일념의 깨달음이고, 녘념(念念) 염불하면 녘념이 곧 깨달음인 것이다.” 책은 중국의 고승 담허(1875~1963) 대사의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원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제1부 ‘담허대사 염불론’과 제2부 ‘득도에 이르는 정혜쌍수’로 구성되어 있다.

붓다의 가르침은 인도로부터 발생하여 중국으로 전해졌고 점차 전 세계로 널리 퍼져나갔다. 그 가르침의 목적은 다름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고통을 벗어나 즐거움을 얻는 이고득락(離苦得樂, 해탈)에 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어 49년 동안 설법 하셨는데, 그 내용을 모두 결집하니 총 3장 12부가 되었다. 중생들의 근기가 갈지 않기에 그에 대한 가르침도 역시 달랐다. 불법이 중국으로 전해진 후 3장 12부 중에서 그 지향하는 목표가 각기 특색을 드러내듯 마침내 선(禪), 교(敎), 율(律), 밀(密), 정(淨)의 다섯 가지 종파로 나뉘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나는 것은 아니다. 경전 속에서는 ‘중’과 ‘파’를 찾아볼 수 없다. 중생들의 근기가 각기 다르므로 그에 맞추어 자연적 추세로 뒷사람이 앞사람을 계승하여 주력하는 그 방편을 깊이 접하다보니 다섯 가지 큰 종(宗)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이 다섯 가지의 수행은 다른 방편이지만 모두 이고득락(해탈)을 위함이다. 이 중 정토종은 염불수행, 즉 아미타불을 외우고 일심불란(一心不亂)이 되면 부처님의 점인(接引, 오셔서 데려감)을 받아 윤회계인 삼계를 초월하여 극락왕생을 이루는 것이 핵심이다. 정토법을 닦을 때 유일한 행지(行持, 실천수행)는 바로 정성껏 염불하는 것이다.

책은 염불수행의 위대함을 설한 것으로, 제1부에서는 염불수행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탈법 가운데 하나임을 설하고 그 의미와 이유, 과정 그리고 염불하는 방법 등을 소개한다. “염불은 알고 보면 사람마다 반드시 실현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 일(本分事)이다. 또 사람이면 누구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염불의 의미는 곧 내 마음속에 숨은 거룩한 깨달음과 그 깨달는 지혜를 일념으로 구하는 것이다.” 책의 특징은 내용이 간략하고 명확하다. 핵심을 짚어준다는 것이다. 송상섭 지도원장은 “말만 풍성하고 핵심이 빠진 내용은 읽을수록 심한단 판단해지고

해탈로 가는 길을 오히려 방해한다. 이 책은 그런 폐단이 없다.”고 말한다.

“염불처럼 강한 해탈문이 없고 선정같이 빠른 증득문이 없다. 재론할 여지도 없이 염불은 정토왕생에 제일 확실한 방편이다.” 책은 제2부에서 또 하나 염불을 통해 일념과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해탈에 이르는 길은 선정을 닦았을 때 비로소

염불수행의 위대함 설한 담허대사의 <염불론> 번역·해설
止·觀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로 선정 얻는 방법 체험적으로 설명

다가가 수 있는 것으로, 삼계를 벗어나 불국토로 왕생하는 염불수행조차도 선정이 기초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심불란의 큰 집중력은 마련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정이 깨달음이란 극락왕생이란 모든 수행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관쌍수는 순일한 집중력을 배양하는 지(止)와 밝은 통찰에 이르는 관(觀)을 고루 닦는다는 말이다. 줄여서 이를 정혜쌍수라고도 한다. 집중위주의 사마타와 관찰위주

의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융합적인 수행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수행도 만약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닦으면 반쪽짜리 수행이 되어 원만한 수행이라고 말할 수 없다. 집중은 잘 하는데 단순하고 지혜가 없거나 지식만 최고로 아는 사람처럼 머리는 있으나 실행력이 빈약하면 지혜와 실천 즉 안팎을 고루 갖춘 큰 수행은 못되는 것이다.

책은 염불과 선정의 의미와 이유, 둘의 관계를 설명하고 염불을 하는 자세, 진정한 염불수행이라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핵심을 짚으며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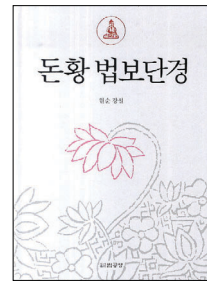
책은 선정과 지혜, 사마타와 위빠사나, 염불과 참선을 닦는 모든 수행자들이 읽으면 수행의 일대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박재완 기자 wanhollo@hyunbul.com

저자 담허대사(1875~1963)
중국 허북 영하에서 태어났다. 40세에 <법화경>을 듣고 즉시 속진을 떠나고자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43세 되던 때, 천전에 있는 청수원의 청지법사의 인도로 내수 고명사의 인괴법사를 의지하여 출가했다. 1910년(1921) 심양 만수사 불학원에서 강석을 열어 법문을 했다. 1915년에는 제한법사의 부촉에 의해 보정, 정권 법사와 더불어 천대중 44세가 되었는데, 이때 금현(金鉉)이란 이름을 받았다. 이후 동북지방 각지에서 경전을 강설하며 불법을 널리 폈다.

또 한 번 쉽고 명료해진 <육조단경>

돈황 법보단경
원순 강설 | 법공양 펴냄 | 2만원



“태생이 하찮은 영남 오랑캐가 감히 부처가 되려 하나나?”

“사람의 태생에는 남과 북의 차별이 있어도 부처님 성품에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선종의 육조인 혜능이 장터에서 우연히 금강경의 한 구절(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을 듣고 오조인 홍인 스님을 찾아가 부처님 법을 달라 했을 때 오조가 되어 설법한 내용이 담긴 것이 <육조단경>이다.

책은 원순 스님의 <육조단경>강설이다. 돈황본이다. 지금까지의 판본과는 달리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게 <육조단경> 돈황본 강설
핵심은 <반야심경>

불량이 적고 핵심만을 수록했다. 원순 스님은 ‘일반 재가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육조단경>’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불사라고 했다. ‘좀 더 쉽게’, 그렇다 모든 ‘번역과 해설’은 그 ‘좀 더 쉽게’를 위해 태어난다. 또 한 번 읽기 쉬운 <육조단경>을 만난다.

<육조단경>은 돈황본, 덕이본, 종보본, 혜촌본, 대승사본, 흥성사본 등 여러 판본이 있다. ‘돈황본’은 돈황 석굴에서 필사본 <육조단경>이 발굴되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상당히 많은 원문의 한자를 교정하여 유통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돈황본’이다. 문장이 잘 다듬어진 ‘덕이본’과는 사뭇 대조적이지만 ‘돈황본’은 천년 동안 돈황굴에 보관되어 뒷사람들의 손질을 받지 않아 본래 뜻이 훼손되지 않았으므로, 육조 스님의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돈황본’은 ‘덕이본’처럼 극적

인 흥미는 없지만, 선종의 근본 가르침을 담박하게 바로 볼 수 있다. 책의 제목을 <돈황 법보단경>이라고 한 것은, ‘돈황굴에서 나온 법보단경’이란 뜻이다. ‘법보’란 육조 스님의 이 말씀이 법의 보배, ‘최고의 가르침’이란 뜻이기 때문이다.

책은 1부 ‘법보단경’, 2부 ‘법보단경 강설’로 나뉘어져 있으며 1부에는 ‘육조단경이 만들어진 인연’, ‘스승을 찾아가다’를 비롯한 총 3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부에는 강설을 옮겨 ‘법을 얻게 된 인연’, ‘존재하는 온갖 모습은 다 허망하다’, ‘신수 스님과 육조 스님의 계승’, ‘여덟 가지 찾던 길을 바로 잡는 팔정도’ 등 구체적인 며칠간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설에서는 <육조단경>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마하반야바라밀법, 무상삼매, 등교법 등 <육조단경>의 핵심 부분을 풀이하고 있다. 특히 탁월한 안목으로 선가에서 많이 회자되는 신수 대사의 계승과 육조 대사의 계승을 풀이하고 있다.

원순 스님은 “<돈황 법보단경>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 ‘자기 마음이 본래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들이켜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그 마음자리아말로 부처님과 다르지 않을 자리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라고 원순 스님은 독자들에게 불자들을 향해 당부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

한편, 부록편에 <한글반야심경>을 수록한 것은, <금강경>을 대중들이 알기 쉽게 풀어 쓴 것이 <돈황 법보단경>이며 금강경의 본디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인데 이 경의 핵심 사상이 모두 <반야심경>에 담겨져 있고 금강경 도리가 온전히 녹아 있는 <반야심경>을 보면 <돈황법보단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반야심경을 한글로 풀이하였음을 밝혀두고 있다.

원순 스님은 그동안 <마음을 바로 봅시다(명주회음)> <禪스승의 편지(대혜 서장)> <한글원각경> <선요> <도서> <연꽃법화경> <선가귀감> <금강경오가해설의 6권> 선가귀감을 강설한 <선 수행의 길잡이> <큰 믿음을 일으키는 글(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소)> 등 다양한 불서를 펴냈으며 보석 같은 불서는 전국의 선원, 강원, 율원 등 승가사와 인연 있는 불자들에게 법공양 출판사 이름으로 보급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한국선의 흐름을 한눈에

간추린 한국 선사상사
-선의 전래부터 고려시대까지
정영식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원



한국선은 중국선의 전래다. 즉 중국에 유학한 승려들이 당시의 중국선을 배워왔으므로 선이 전래되었던 것이다. 책은 한 반도에 선이 전래되는 과정, 구산선문의 성립과 종파의 융성, 조계종의 성립과 전개, 임제종의 융성과 고려말 삼사(三師)의

선사상 등을 다뤘다. 한국선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선사들과 사상의 흐름을 간략하게 핵심만 쏙 빼 엮은 입문서다.

1970년대 이후 한국선사상에 대한 연구는 점점 증가되어 왔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수한 연구 성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외국의 번역에 의존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연구 결과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불교사 부분이 특히 그렇다. 불교사 중에서도 사상사 영역은 더하다. 그러나 ‘선’ 사상사 부분은 말할 것이 없다.

책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기획되었

다. 그것도 초심자를 대상으로 했다. 애초 현대까지 이르는 통사를 기획하였으나, 관련 연구들의 부족으로 부득이 고려시대까지 한정하고, 조선시대 이후는 훗날의 연구로 미루었다.

초심자를 대상으로 했기에, 각 시대를 대표하는 주요 인물과 핵심 사상만을 간추렸다. 선의 전래부터 고려 말까지 한국선이 어떤 흐름 속에서 형성, 발전되어 왔는가를 주요 인물들의 생애와 저서, 사상적 특징 등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정리했다. 따라서 분량 면에 있어서도, 한눈에 읽어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양을 줄였으며, 다만 전문가들을 위해서 한국선사상 관련 논문 목록을 부록으로 첨부했다.

제1장 ‘선의 전래와 구산선문의 성립’에서는, 한반도에 최초로 선을 전래한 법랑과 신행, 지덕, 그리고 정종무상의 활동에 대

해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제2장은 ‘구산선문의 전개와 종파의 융성’으로, 이는 시기적으로 10세기부터 11세기 말에 해당한다.

제3장은 ‘조계종의 성립과 전개’인데, 12~13세기의 시기로, 고려 중기에 해당한다. 천태종의 영향으로 점차 쇠퇴하던 선종이 조계종으로 재편되며, 중국과의 교류 확대와 인쇄술의 발달로 중국선의 영향이 더욱 강화된다.

제4장은 14세기, 즉 고려 말기를 다루고 있다. 이 시기는 원나라 불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불교의 타락과 세속화가 극에 달했던 때이다. 그런 중에도 그 경지를 크게 드날린 이들이 있으니 여말삼사(麗末三師)라 불리는 태고보우, 나옹해근, 백운경한이다. 여기서는 그들의 사상과 활동, 저서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있다.

박재완 기자

한마음선원에서 발행하는 어린이 인성교육 월간지 <마음꽃>은 어른들도 함께 보는 어린이 마음공부 놀이터입니다.

친구가 내 다리를 걸어서 넘어졌다. 하지만 ‘화내지 않고 말라게 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친구에게 차분히 물어보았더니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다. 화를 내지 않아서 다행이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김상현 (초5)

월간 <마음꽃> 2013년 4월호 ‘아무나 쓰는 이야기’ 중

마음꽃

피어라,

“가기 싫은 학원을 즐겁게 갈 수는 없을까?”
“보기 싫은 친구를 사랑할 수는 없을까?”

나와 같은 고민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마음꽃>에서 만나보세요.

정기구독 안내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31)470-3180 / 010-5650-3180

정기 구독료 :
30,000원 (1년 / 12권)

입금 계좌 :
농협 356-0822-8773-23
(예금주 : 권나라)

* 사철이나 학교·도서관에 기증되는 마음꽃은 구독료를 받지 않습니다.*